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 특출

전북중기청, 현장밀착형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열어 기업의 애로·건의사항 경청... 소통 공감의 장 마련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 이하 전북중기청)은 지난 7일 전주 소재 (주)아이에스피(대표 박정권) 방문 시작으로 '2019년 첫 현장 소통 간담회' 행보에 나섰다. 11일 밝혔다.

이치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의미가 없다'며, "평소 소신을 실천하기 위해 현장소통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소통을 하기 위해 매주 2회이상 총 114회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주)아이에스피(대표 박정권)는

유해물질분석기 전문기업으로 형광 X선 분석기술 및 도금두께 측정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존 외국 기술에만 의존하던 장비를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하여 국내기업, 연구기관에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할 수 있게했고 이러한 기술력을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중국, 인도, 베트남 등에 수출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및 2019년 달라지는 제도 등을 소개하고 기업의 애로, 건의사항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중기청 김광재 청장은 "전북중기청은 현장소통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컨트롤 타워이자 허브기관으로 역할을 다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협업할 것이다"면서 또한, "행정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현장과 공감하는 것이 중요. 올해에도 매주 2회 이상 현장을 누비며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 이를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구현에 앞장

전북농협, 동시조합장선거 대비 공명선거추진대책회의 열어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지난 11일 3월 13일에 열리는 제2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열었다. 특히,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는 유재도 위원장, 부분부장, 감사국장, 13개 시군지부장을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선거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선제적 대응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협의체이다. 또한, 회의는 조합원 자격으로 인한 피선거권, 선거권 관련 선거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격 조합원 정리, 공정한 선거를 위한 시군지부 중점 추진사항을 공유했다. /김영태 기자

아울러, 전북농협은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관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 조합원, 후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계도를 통해 클린선거 구현에 앞장 설 계획이다. 한편,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3.13 동시조합장선거 이전까지 관내 전 농·축협을 대상, 공명선거 추진 태세, 조합원관리 실태, 사고예방 등을 점검할 예정이며,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 강소농협 육성을 책임질 지역의 일꾼을 뽑는 조합장선거에 지역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이 지난 11일 제2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공명선거추진대책위원회'를 열었다.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한다

전북중기청,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 가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1일 전북중기청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소재 공공기관 구매 및 계약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설명회'를 했다고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공공구매제도와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전반에 대한 내용이다.

주요내용은 '중기간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입력 방법, S2B(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안내' 등이다.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는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판로지원법)'에 따라 매년 총구매액 중 일

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제품,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으로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광재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북지역 공공기관에서 2017년에 총 3조3,000억의 제품구매액 중 92%인 3조1,000억원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 중소기업의 판로 증대에 크게 기여했다"며,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의 관련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 지역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설명회 참석자들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 내일 고등학생 경제캠프 개최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도내 고등학생들이 건전한 경제의식을 함양하여 합리적인 경제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2019년 한국은행 전북

본부 고등학생 경제캠프'를 펼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제토론(팀별)은 '기업의 이윤 추구와 사회적 책임 간 조화,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안정성과 유연성 양립 방

안'을 주제로 예산에서는 19개팀(총 85명), 결산에서는 8개팀이 토론을 한다. 또한, 경제퀴즈(개인별)에서는 결산 및 예산 참가 학생 중 희망자가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참가자 중 경제토론 부문 최우수상(전라북도교육감상), 우수상(전북일

보사장상, 한국은행 전북본부장상) 등 경제퀴즈 부문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한편, 경제캠프는 2011년 이후 9회째 하고 있으며 도내 고등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가운데 학생들의 토론 능력 향상과 경제지식 함양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9년 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만족 추구

무주리조트, 9년 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 수상

부영그룹 무주덕유산리조트가 9년 연속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무주덕유산리조트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 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한국인문인협회 후원,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하는 2019 고객감동경영대상을 수상했다. 이로써 무주덕유산리조트는 이 상을 9년 연속 수상하며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고객감동경영대상은 소비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우수 기업을 선발,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 올해는 61개 기업과 기관이 수상사로 선정됐으며 무주덕유산리조트를 포함해 10개 사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명예의 전당은 소비자의 선택과 고객감동경영 성

과를 이룬 업선된 기업들 중 8년 이상 수상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최고의 상으로 익년에 헌액된다. 무주덕유산리조트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건 낱다른 의미가 있다. 2018년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외부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별화와 즐거움을 전달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것은 물론, 끊임없는 혁신과 고객 만족을 추구하면서 9년 연속 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자리인 명예의 전당에 오른 것이다. 무주덕유산리조트 관계자는 "고객 감동을 위해 오랫동안 힘써왔던 노력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차별화된 고객 감동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본격 시동

전북농협 업무보고회 가져

전북농협은 지난 11일 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유재도 본부장을 비롯해 시군지부장, 지역본부 직원 등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의 사업 방향에 대한 계획과 실천 방안을 보고하는 '2019년 업무보고회'를 가졌다. 업무보고회는 지역본부 단별 지난해 주요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전북농협은 주요 업무 계획으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천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영태 기자

직원의 역량 결집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 만들기 운동 전개 △농산물 판매·유통 채널 강화 △로컬푸드를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 △도 광역물류체계 구축사업의 안정적인 도입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청정축산 구현 등을 제시했다. 전북농협은 "농가인구의 감소와 노령화, 국내 농산물 소비감소, 기후변화, 지속되는 농업경영비 상승 등 농업과 농협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치 않다"며,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계획을 철저히 준비하여 실천하자"고 결의를 다졌다. /김영태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